

보도자료

2011년 8월 11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 팀장(☎750-2750)
네트워크정보보호팀 김신겸 사무관(☎750-2755) sgkim@kcc.go.kr

汎 국가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

- 정부는 11일, 금년도 을지연습기간 중 범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‘2011 사이버위기대응 통합훈련’을 오는 8월 16부터 19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.
- 금번 통합 훈련은 국정원, 방통위, 국방부가 참여하여 ‘3.4 DDoS 공격’ 및 ‘농협전산망 장애’ 등과 같이 갈수록 지능화·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위협에 民·官·軍 공동으로 국가차원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정부는 훈련기간 중 국가·공공기관, 민간 기업체, 군부대 등 총 160개 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수준별 사이버 위기경보(관심→주의→경계→심각) 발령에 따른 단계별 대응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며
- 특히, 이번 통합 훈련에서는 가상 시나리오 위주의 도상훈련과 함께 훈련용으로 제작된 악성코드 유포, 전산망 침투 및 홈페이지 위변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.
- 정부관계자는 이번 훈련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유관기관 간 대응 체계를 점검·강화하는 한편, 사이버 안전 위기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가차원의 사이버 위기관리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. 끝.